

오늘의 계시관

22일
▲레저보트·세일링 요트 진수 및 명명식=오후 1시 목포시 평화광장, 대불대 지역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레저보트(길이 18feet·무게 1t) 및 연구용 세일링 요트 명명식 및 연신풍장 재현식 행사.
▲희망 2007 전남도 이웃사랑캠페인 추진대회=오후 2시 담양군 문화회관.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포럼=오후 2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인문사회학관. 위령탑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 장선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여수국가산단의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 주제발표.
▲바다사랑 캠페인=오후 2시 여수시 소호요트장. 500여명이 참석해 소호요트장 주변 해안 정화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포럼

오후 2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인문사회학관

활동.
▲글로벌 CGI 제작센터 개소식=오후 3시 광주 금호생명빌딩.
▲제 83회 21C 답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김동진 ㈜솔로몬기업전략 연구소장이 '우리농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23일)
▲2006 대한민국 에너지체결전=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석탄, 석유광, 신·재생 에너지 절약관 등 9개 주제별 전시관 운영. 26일까지.
▲2006 하늘·바람·땅 에너지전=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식 오전 10시30분. 독일·영국·캐나다·미국·호주·중국 등 13개국 65개사가 138개 부스를 마련.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수소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제품 전시. 한국신재생에

중마 선발대회·갯김치 탐구기 경연·갯김치 시식회·갯김치 무료 증정 행사 등. 다양한 갯김치 전시. 25일까지.

공연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22~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김현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22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12월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김수남·박종우 등 국내작가 9명, 프랑스 마리 폴 네그르 등 해외작가 32명 등 41명 참여. 물 오르다·잇김·영혼의 선물·물의 행성 등 4개 섹션으로 구성.
▲그룹 라이브 초대전=22일까지 지산갤러리.
▲선목회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마음으로 읽는 아트북 순회전=22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뉴스퀴즈

39. 한국 피겨 선수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피겨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 한국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김연아 ②진선유 ③변천사 ④남나리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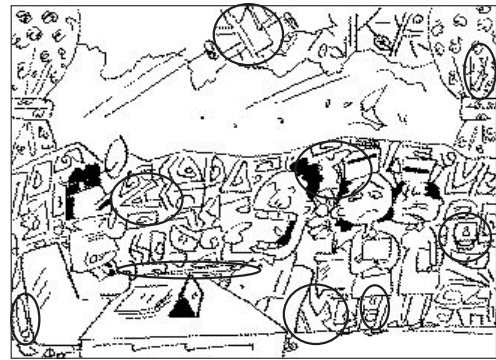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48 >



▲지나주 정답

열대어, 자동차, 펜촉, 서둘룩, 고추, 한국지도, 송사리, 바늘, A자



찾아보세요 못, 칫솔, 대접, 열대어, 화살, 서둘룩, 바늘, A자, 제비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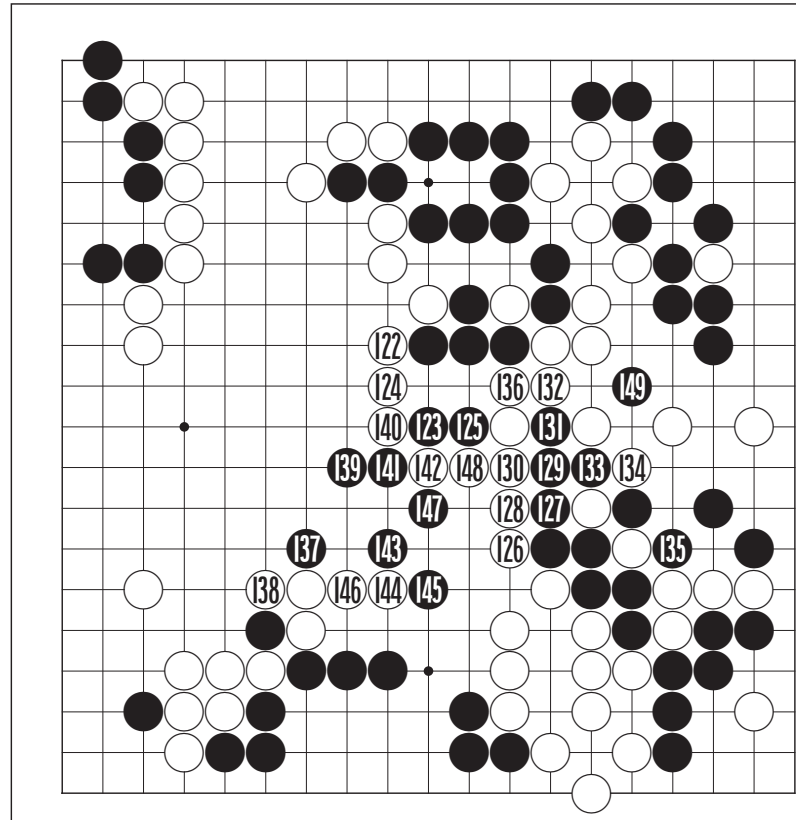
한 청년이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다. 1977년 7월7일 낮잠을 자는데 꿈에서 북두칠성 7개의 별이 보였다. 잠에서 깨어 무심코 시계를 보니 7시7분7초였다. 까닭없이 기분이 좋아진 청년은 그 즉시 모든 재산을 팔고 777번 버스를 탔다.

중점은 경마장이었다. 구경을 해봤더니 7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7번 말에 걸었다. 그러나 청년은 기절하고 말았다. 7번 말이 7등을 했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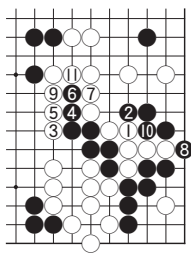
▲당첨자 김영숙·광주시 서구 풍암동 장이랑·광주시 서구 화정동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직계비독대회

승리에 들른 약수 8보(122~149)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122로 찢히면서 정 5단은 승리를 확신하는 눈치에 백 5단도 125로 뚫고 나가면서 끈질기게 우변 백의 허점을 노린다. 정 5단은 126으로 우변 백 대마의 수습에 나서는데 이 수가 승리에 들른 약수로 흑에게 역습의 발미를 주고 만다. 이렇게 되면 130까지는 외

길수순인데 흑 131로 찢고 들어간 수가 백의 약점을 추궁하는 좋은 수로 백이 136으로 이어갔지만 나중에 149에 두어 우변의 백 석점을 차단하는 큰 수가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126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하나 이어둔 다음 11까지 결정해야 했다. 흑 137로 두점머리를 때려 잡을 날린 다음 139로 뛰어남이 것이 노련한 수법으로, 드디어 역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앙의 약점을 놔두고 149로 달려간 것은 또 무엇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목진석, 원익배서 조한승 제압

목진석 9단이 지난 20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2회전에서 조한승 9단을 17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본선 3회전에 진출했다.

목 9단은 백흑석 5단-조혜연 7단의 대국승자와 4회전 진출을 다룬다. 현재까지 이 대회 3회전에 진출한 기사는 목 9단을 비롯 안조영 9단, 박정상 9단, 박승현 5단, 이영구 6단.

박정상 9단은 3회전에서 박승현 5단과 격돌할 예정이었으나 박 5단이 군인대하는 바람에 부전승으로 5회전에 진출하게 됐다.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81>

He is such an open-minded person 그 사람, 포용력이 대단하네

A: He is such an open-minded person. B: That's what I heard. A: Not rigidly business-minded but very flexible. B: I'm glad to hear you say that. A: 그 사람, 포용력이 대단하네. B: 그 얘긴 나도 들었어. A: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대단히 유연한 사고방식이구나. B: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고맙네.

open-minded : a. 편견 없는 : 허심탄회한 : 포용력이 있는 an open-minded person : 도량이 넓은 사람 an open-minded thought : 편견없는 사고 rigidly : 정확히, 엄격히, 완고하게 flexible : 융통성있는, 적응성있는, 탄력적인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81>

日本語吹(ふ)き替(か)え版(ばん)ですよ 일본어 더빙 판입니다

A: ビデオでも見たいですね。何か日本のビデオはないですか? B: 今はないんですよ。でも「シックスセンス」なら、ありますよ。日本で買ってきました。 A: それは字幕(じまく)スバですか。それとも、日本語吹(ふ)き替(か)え版(ばん)ですか? B: ああ、日本語吹(ふ)き替(か)え版(ばん)ですよ。

A: 비디오라도 보고 싶군요. 뭔가 일본 비디오는 없습니까? B: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식스-센스'라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A: 그건 자막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어 더빙 판입니까? B: 아, 일본어 더빙 판입니다.

シックスセンス : 식스센스 字幕(じまく)스바 : 자막 吹(ふ)き替(か)え版(ばん) : 더빙판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499>

축축 덕분에, 은혜를 입다

A 怎么样? 孩子没事儿吧. B 昨天那场雨把我家屋顶给冲塌了. A 那这么说, 屋顶上都会这么做的. B 我都不知道怎么修才好.

A 怎么样? 孩子没事吧? B 昨天那场雨把我家屋顶给冲塌了. A 那这么说, 屋顶上都会这么做的. B 我都不知道怎么修才好.

A 怎么样? 孩子没事吧? B 昨天那场雨把我家屋顶给冲塌了. A 那这么说, 屋顶上都会这么做的. B 我都不知道怎么修才好.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99>

異樣船 (이양선) 다들 이, 모양 양, 배 선

이양선(異樣船)은 다른 모양의 배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외국의 철선(鐵船)을 가리켜서 불렀던 말이다. 특히 1860년에 들어 시가면 연기를 내뿜으면서 철 새 없이 연해(沿海)와 섬 근처에 나타나서 망원경(望遠鏡)으로 육지의 사정을 살폈다. 그들은 지형(地形)을 조사하고 바다 깊이를 재고 암초를 표시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육지에 오르지 않았다.

18세기 전반에도 프랑스, 영국, 미국의 이양선이 출몰하여 필요한 식량을 식수를 자기네가 가지고 온 물건과 바꾸어 가지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러시아 배들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출몰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상선들은 서해안 섬을 중심으로 나타나 은밀하게 밀수(密輸)를 할 뿐 적극적으로 육지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에 흥선 대원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양선의 연해 왕래를 금지시켰고, 또한 우리 배들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멀리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양선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함부로 상륙하지 않았다. 단 러시아의 이양선은 대평양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부동항(不凍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한예민(韓藝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